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EXPLORER'S CODE

가제 : 탐험가의 암호

저자 : Allison Hymas

출판사:Imprint

발행일: 2020년 9월 29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모험



* 비밀의 역사와 보물을 감추고 있는 집, 흥미로운 실제 암호와 퍼즐들이 등장하는 모험 소설

세 명의 아이들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아이들우드 저택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곳에 모였다. 이 저택은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손길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곳으로 암호와 퍼즐 수수께끼로 가득한 곳이었다. 각자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저택에 감춰진 보물들을 찾기로 한다. 승자는 누가 될까? 아이들은 서로의 힘을 모아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서로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만나 서로의 차이와 이기심을 극복하고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그린 모험 소설이다.

애나 핸더슨은 처음 아이들우드 저택을 보았을 때 엄마가 보는 영국 드라마에나 나오는 그런 뻘한 호화 저택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회색 빛 속에 서 있는 그 저택을 보니 왠지 유령이 한 둘은 살고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한 장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애나네 가족들이 그 저택 앞으로 다 모이자 저택 관리인인 젊은 청년 가렛이 나타나 그들을 맞이했고 애나에게 퍼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수학 천재가 애나냐며 물었다. 그러자 애나는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곁에 있던 애나의 엄마는 그 우승자는 바로 애나가 아니라 애나의 동생인 찰리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애나는 학교 현장학습으로 방문한 박물관의 금지된 구역에 갔다는 이유로 방학 동안 학교에서 주최하는 단기 여행에 가지 못했고 그 바람에 이곳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애나는 자신이 특별한 잘못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모험 대신 이 저택에 처박혀 있을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애나의 엄마는 애나에게 찰리가 수학 대회에서 이긴 덕분에 그 상으로 이 저택에 오게 된 것이니 남동생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찰리가 수학 분야에 있어서 천재적 기질을 나타내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나와 찰리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애나가 학교 지붕 위에 올라가는 바람에 특별 규율에 따라 온 학교 선생님들의 감시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는 동안 찰리는 '올해의 바른 어린이 상'

과 같은 상들을 휩쓸었고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책에만 파묻혀 살았다. 결국 두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성격의 차이만큼 그렇게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그리고 애나는 자연스럽게 언제나 찰리의 비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애나는 결코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렬되어 있고 규칙과 오래된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학교나 이 답답한 저택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애나는 이 저택에서 일주일 간 머무는 동안 반드시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장소를 찾아 내리라 다짐했다.

모든 가족들이 저택 안으로 짐을 옮긴 후 찰리가 대표로 이 집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읽었다. 그 중 흥미로운 규정은 이 저택 내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신의 스마트 폰들을 다 차 안에 두고 왔고 찰리는 자신이 가져온 수학, 퍼즐, 암호와 관련된 책들을 휴가 내내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애나는 그런 찰리를 끌고 바로 저택을 둘러 보기 시작했고 어쩐지 수상해 보이는 한 남자를 마주쳤다. 그 남자는 바로 이 저택의 주인 에반 르웰린으로 저택의 역사에 관한 책자와 안내사항을 전해 주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이 저택에는 총 열 개의 스위트 룸이 있으며 이번 한 주 동안 애나네 가족을 포함한 총 열 개의 팀이 이 곳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저택 전체를 둘러 보고 싶을 경우 반드시 자신에게 투어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시각 이 저택의 역사와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온 에밀리 역시 저택에 들어섰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에밀리가 평범한 열 두 살짜리들처럼 휴가를 즐기기를 바랐지만 에밀리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에밀리는 부모님에게 자신 역시 부모님을 도와 저택의 비밀을 밝혀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싶었다.

한편 애나는 에반이 말해 준 규칙을 어기고 자신이 동경하는 탐험가 버지니아 메인스가 여자라는 이유로 아프리카 대륙 탐험을 금지 당했을 때 과감히 규칙을 깨고 탐험을 떠났던 것처럼 이 저택을 몰래 둘러보기로 결심했다. 방들을 둘러보던 중 애나는 출입이 금지 된 방들 근처에서 에반에게 붙잡혀 방으로 돌아가던 중 에밀리를 만났고 이 집을 설계한 '일레인 가드너'라는 여성이 저택 안 방 몇 개를 특별히 초 현실적인 세상과 같은 곳으로 꾸며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애나와 찰리, 에밀리는 애나의 우상인 버지니아 메인스가 이 저택에 탐험 중 발견한 보물들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운 암호들을 풀고 퍼즐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하지만 보물들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과연 서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어른들에게 맞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실제 암호들과 수식,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앨리슨 K. 히마스 (Allison K. Hymas)는 아멜리아 하트가 여성 파일럿으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비행을 성공해낸 날 태어났다. 그녀는 지금 유타주에 살며 글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작으로는 『Under Locker and Key』, 『Arts and Thefts』가 있다.

제목 : POP!

가제 : 툃!

저자 : Mitch Johnson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21년 1월 4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모험, 환경



* 환경 오염과 기업의 탐욕에 대해 아홉 살 정도의 어린이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쓰여진 유머와 액션이 넘치는 모험담

* 데뷔작 『Kick』으로 평단의 찬사와 수상 경험이 있는 작가의 신작

퀴니 데 라 크루스는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소도시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를 만드는 귀중한 레시피가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퀴니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과 그 제조법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옳지 않는 것에 대해 맞서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툃툃툃 튀는 탄산 음료에 관한 모험담이다.

태평양 바로 4만 피트 상공, 한 제트기에 타고 있던 라일 펀더벌크는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인 '맥 토닉'을 마시고 있었다. 일본에서 열린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맥 토닉을 더 많이 생산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제트기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때 라일이 타고 있는 제트기 반대 방향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상하이로 가고 있는 또 다른 제트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제트기는 어째서인지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릴 작정으로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었다. 그 제트기 안의 유일한 승객 역시 맥 토닉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레위 헤워트로 라일과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두 사람은 '주식회사 맥 토닉'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로 라일은 이 회사의 국제 마케팅 및 브랜딩 담당자였고 레위는 글로벌 운영 담당자였다. 그들은 현재 맥 토닉 사의 CEO인 드와이트 이글만이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맥 토닉사의 새 CEO가 될 유력 후보들이자 적이었다. 두 사람은 한 달 뒤 뉴욕에서 열릴 회사 연례 주주 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었고 이렇거나 빨리 게다가 4만 피트 상공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얼마 후, 두 제트기는 각 제트기에 탄 조종사들이 서로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고 라일과 레위는 비명을 지르며 마음 속으로 온갖 고통스러운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각 제트기가 물에 닿는 순간 자신들은 죽어도 회사만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하나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기밀 유지를 위해 이 세상에서 맥 토닉의 제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가 탄 제트기의 충돌로 동시에 이 세상과 작별 중이라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들은 두 사람이 동시에 상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단 한번도 같이 출장 조차 간 적이 없었다. 두 사람

은 서로가 탄 제트기가 공중에서 충돌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노스 니치, 퀴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빠 처키가 은행에서 돈을 훔쳐 자기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처키는 늘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속임수를 쓰고 돈을 훔치는 일에 달인인 사람이었고 오빠가 돈을 벌어야만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퀴니는 그저 모른 척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오빠가 도둑질을 마치고 함께 돌아가는 길 퀴니는 오빠에게 쓴 소리를 했고 둘은 한바탕 몸 싸움을 벌였다. 오빠가 집에 들어간 후 바닷가 모래 위에 누운 퀴니는 하루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가자는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상상했던 모습과 달리 노스 리치에는 수영복만 입은 근육질의 남자들도 없었고 화려한 파티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도 없었다. 대신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들과 퀴니의 갈증을 자극 하는 맥 토닉 병들만 떠다녔다. 그리고 그 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시위대들인 것처럼 보이는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두 남녀가 나타났고 그 두 사람은 퀴니에게 다가와 함께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곧 이어 나타난 처키와 퀴니의 엄마가 무섭게 소리 지르며 그들을 라고 쫓아내는 바람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맥 토닉의 CEO 드와이트는 환경 보호주의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원의원 맥베이와 재선에 대해 논의 한 후 라일과 레위가 실종 되는 바람에 긴급하게 열린 이사회회에서 회의를 연 후 회사 기밀로 보관 되어 있던 맥 토닉 제조법 초고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얼마 후 드와이트와 회사 임원들은 원 제조법이 금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편 그 시각 퀴니는 아까 만난 히피들이 했던 것처럼 바다에 나가 쓰레기들을 주워보기로 했다. 퀴니는 그곳에서 수 많은 병들 중 돌돌 말린 종이가 들어가 있는 맥 토닉 병 하나를 발견했고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얼마간 맥 토닉 생산량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드와이트의 TV 발표를 보았다. 얼마 후 퀴니는 그 병 속에 담긴 것이 바로 맥 토닉 제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퀴니는 곧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제조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결국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다. 퀴니는 도망치던 중 토드를 만나게 되고 고된 여정길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이 세상은 환경과 세상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이익과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기업들 때문에 거대한 쓰레기 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두 친구는 이 세상을 바꿀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된다. 퀴니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고 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환경 문제와 거대 기업의 탐욕, 모험, 두 친구의 용기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치 존슨 (Mitch Johnson)은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문예창작 학위를 받았고 데뷔작 『Kick』을 완성했다. 아동권리에 대한 소설인 이 작품은 영국 국제 엠네스티의 인증을 받았으며 작가는 이 작품으로 2018년 Branford Boase Award를 수상했다. 현재 미치는 한 서점에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